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중 헌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300 FAX: 563-3932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전국 목회자 세미나 제5학기 개강

한국 교회 성장과 발전의 기폭제 "목회와 교회 성장"을 주제로

우리 교회 부설 한국교회성장 연구원(원장 신성종 목사)은 오는 9월 14일 오후 1시에 목회자세미나 제5학기를 개강한다.

전국 목회자들의 영적 각성과 자기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온 목회자세미나는 이번 학기에도 "목회와 교회 성장"이라는 주제로 9

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주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 연일

일자	강 의	강 사
9. 14	교회적 측면에서 본 교회 성장	이종성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21	목회와 커뮤니케이션	김갑환 목사(명성교회 담임목사)
28	현대 목회와 상담의 필요성	임영수 목사(영락교회 담임목사)
10. 5	한국 교회 성장과 그 문제점	홍경길 목사(남서울교회 목사)
12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 사역	김종기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19	강해 설교의 방법과 실제	정진경 목사(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
26	성령의 역사와 교회 성장	조용목 목사(안양남부순복음교회 담임목사)
11. 2	성숙한 교회와 영성 훈련	김동익 목사(새문안교회 담임목사)
9	새벽 기도와 교회 성장	나경일 목사(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
16	목회자와 교회 성장	김홍도 목사(금란교회 담임목사)

충현기도원 부흥성회

- 날짜: 8월 24일~27일
- 장소: 충현기도원
- 주제: 기도로 승리합시다
- 강사: 김창인 목사
신성종 목사
유창무 목사

성경연구원개강

성경연구원 제2학기가 오는 9월 5일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다.

성경연구원은 충현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주간성경공부

◆ 교사양성부

	제1교시 주일 오후 12:30~1:20	제2교시 주일 1:30~2:20
	화요일 오후 7:00~7:50	화요일 오후 8:00~8:50
9. 6, 8	하나님의 나라 이조용 목사	우선순위와 시간관리 최인근 목사
13, 15	영적 성장과 성숙 조동원 목사	교육 행정 및 관리 이종국 장로
20, 22	우선순위와 시간관리 최인근 목사	그리스도의 주권과 삶 윤용규 목사
27, 29	삼강의 도 신표근 목사	구원의 상담 원리 김희수 목사
10. 4, 6	구원법 장연희 전도사	세계 선교의 비전 김창수 목사
11, 13	양육의 원리와 실제 이병각 목사	효과적인 반 복회 김성운 목사
18, 20	분을 보임 김양홍 목사	소그룹 인도법 김찬근 목사
25, 27	공동체를 위한 제자도 김창수 목사	성경교수법 김양홍 목사
11. 1, 3	반 배가 전도 훈련 김해균 목사	예배와 찬양 정경철 목사
8, 10	교사의 자격과 사명 김찬근 목사	신앙과 윤리 윤용규 목사
15, 17	기독교 교육과 인간 이해 김태준 목사	인간에게 중점을 둔 교육 김성운 목사
22, 24	반 삼방의 원리와 실제 홍창민 목사	교제 김창국 목사
29, 12. 1	성령의 은사와 봉사 이조용 목사	성경해석학 김정우 목사
6	교회학교실습	

◆ 주간성경공부반

화	오전 10시~11시 10분	예레미야	이병각 목사
	오전 11시 20분~12시 30분	유기	장봉생 목사
	오후 7시 ~8시 10분	사무엘상	이종성 목사
	오후 8시 20분~9시 30분	요한일서	김용기 목사
수	오후 2시~3시 10분	크로스테이 제3권	이조용 목사
	오후 3시 20분~4시 30분	발립보서	김해균 목사

카메라 초점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 사역을 감당한 '92 농어촌전도대원.



▲ 8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권사수양회.

신성종 목사 9월부터 주일에 강해설교기로

그 동안 주일에 제목면, 절기별로 구분하여 설교해오던 당회장 신성종牧사는 9월 첫주부터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주 7장씩 전도를 정하여 강해설교를 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한 주간 동안 미리 공부할 내용을 읽고 묵상한 후에 예배에 참

석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강해설교를 3년 동안 결석하지 않고 함께 준비하면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적극 참여와 기도를 바란다.

	오전 4시 40분~5시 50분	출애굽기	홍영민 목사
목	오전 10시~11시 10분	고린도전서	김창수 목사
	오후 7시 ~8시 10분	갈라	장경철 목사
	오후 8시 20분~9시 30분	크로스테이 제1권	조동원 목사
금	오전 6시~7시	크로스테이 제1권	신성종 목사

◆ 찬양대인양반

	제1교시(오후 7:00~7:50)	제2교시(오후 8:00~8:50)
9. 7	교회인본의 자각 최인근 목사	찬양대의 경건 생활 송숙자 김사
14	합창 호흡 및 발성 조신옥 김사	합창 호흡 및 발성 조신옥 김사
21	음악 이론 최광덕 김사	교회 음악의 분류 최광덕 김사
28	찬양대의 기원과 발전 이관섭 김사	찬양대의 자격 이관섭 김사
10. 5	일반 화성학 김영준 김사	일반 화성학 김영준 김사
12	영적 집회와 성령 이조용 목사	은사와 봉사 김해균 목사
19	찬양과 예배의 능력 김창수 목사	금송에 나타난 사탄의 전술 조신옥 김사
26	한국 예배 음악의 발전사 송숙자 김사	예배에 있어 음악의 위치 송숙자 김사
11. 2	교회음악사 훈련 남궁조 선생	교회음악사 남궁조 선생
9	찬송가학 이관섭 김사	찬송가 분석 이관섭 김사
16	합창워크샵 김영준 김사	합창워크샵 김영준 김사
23	종교개혁의 음악 최광덕 김사	찬양의 시(시편) 김용기 목사
30	찬송가를 부르는 방법 조신옥 김사	예배 찬송과 복음성가 조신옥 김사
12. 5	성경에 나타난 찬양 윤용규 목사	충현 찬양대의 비전 이관섭 김사

일본 선교방문단 18일 출국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는 제2회 한일 기독교년대회를 준비하고 일본 선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김창수 목사(선교위원회 지도)를 단장으로 하여 32명의 성도들로 구성된 선교방문단을 일본에 파송한다.

방문 기간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방문지는 오사카, 나고야, 동경 소재 선교 단체와 일본인 및 한인 교회, 그리고 일본 동맹기독교단 하게 캠프장이다.

방문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창수, 안동현, 오무석, 임영호, 안관영, 이정철, 윤세영, 진원식, 박수인, 정원주, 조우석, 김명희, 홍경숙, 김은정, 윤미재, 유정순, 주정옥, 박경자, 조운경, 손경순, 김재호, 강철형, 이진규, 박용호, 김정선, 이복희, 이용희, 장석두, 이영숙, 차경자, 박효지, 주순희, 장원옥

수화교실개강

- 교육기간: 9. 14 ~ 11. 16 (10주간)
- 교육내용: 초급, 중급, 고급
- 강사: 이준우 전도사 (에바다부 부지도)
- 접수: 교육관 115호



중헌강단

신성종 목사

천국시민의 가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마6:1~4)

마태복음 6장에는 천국시민으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구제 활동에 대하여, 둘째는 기도 생활에 대하여, 셋째는 금식 생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천국 시민의 가치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마6:1)

신자들은 첫째, 항상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들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나의 영광이나 나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을 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인간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인 종적인 관계를 바로 가져야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2. 두 종류의 삶

그런데 1절을 보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2차, 3차의 문제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를 행하거나 선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잘 보여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됩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 싸웠습니다. 예수 믿는 선수들이 상을 받을 때에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라고 묻거나 혹은 물기도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엮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목사의 백 번에 걸친 설교보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전달되는 저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로 이것이 천국시민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시민들의 가치관이란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

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도 칭찬과 인정을 받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의란 첫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고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둘째, 의라는 범정적 개념으로, 범적으로 잘, 잘못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의롭다는 말은 관계 개념입니다.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활을 하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3.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

구제란 한 마디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형편에서 건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제 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제가 과연 상대방에게 유익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제란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구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의 구제가 은밀한 중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4. 구제의 대상

성경에 보면 첫째,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스스로 독립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 당시는 아무리 부자라도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재산이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되지 부인에게 상속되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를 젊은 과부와 늙은 과부로 구분합니다. 늙은 과부들은 교회에서 하루에 두끼씩 계산해서 모든 교회가 돌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들 중에 혼자 지내기 힘든 사람들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전도사 제도가 교회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들이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은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설에 있어서도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을 장애자들이 사용할

기 편리하도록 설치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서구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주고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사랑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봉사관을 헌정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봉사관을 왜 짓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계속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 구제 방법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성전에 나팔이 열세 개 있었는데 구제헌금을 걷을 때는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 선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칭찬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구제할 때 성실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강대강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제 활동이나 헌금일 때 보면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창피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제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을 할 때 아깝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생각해보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가장 가까운 것이 왼손인데 그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소리없이 묵묵히 하고, 선을 행한 다음에는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에서의 상이 없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즉 구제를 할 때에도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은밀한 소망을 가지고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6. 구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척하는 자에게는 지주가 많으리라”라고 했습니다. 구제를 안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제하는 자는 저주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궁핍하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하게 될 때에 자족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족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 오는데 그 사람은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유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여유 있고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 생활을 늘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늘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 언제나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빈사에 너희에게 보물을 보았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20:35)

●충현초대석●

초대 교회처럼 섬김의 도를 실천하자

본 교회 당회장인 신성종 목사가 교계에서 발행되는 월간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회 미래관을 단편적으로 응답한 내용이 게재되었다. 신 목사는 이 인터뷰에서 "충현교회는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초대 교회와 같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다음 글은 게재된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주)

유난히도 보수적이고 유교적 색채가 강한 충청도 수안보에서 태어난 신성종 목사.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그가 기억하는 일생의 소원은 '흰 쌀밥을 배가 부르도록 먹어보는 것'이었다.

소나무집질, 찹뿌러, 술찌꺼 등으로 주린 배를 채워가며 장래에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살겠다는 일념으로 삶을 살아오던 신목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인 김선생 선생을 만나면서였다.

당시 김선생의 관심은 가난하지만 그 가난을 신문판이, 껌판이, 구두담이, 학생과외 등으로 이겨내고 있는 한 학생에게 모아졌다. 그후 김선생은 그 학생에게 '예수'라는 '영혼의 빛'을 비추었고, 육의 안일을 국적으로 삶을 지향하던 신목사의 삶은 세상의 가치가 먹는 것을 중시하는 본능적 가치에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 가치에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소원이라는 것은 고작 물질적인 향유의 욕망에 있었습니니다. 당시의 사고는 제가 보기에 도 동물적 사고였습니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후 저의 가슴에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니다. 인간 삶의 의미에는 먹는 물질적 욕망 외에도 정신적 의미가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목사는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욕망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전 생을 헌신할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육에 눈이 어두웠던 저에게 비전의 빛을 비추주셨고 제가 늘 기도하던 대로 역사의 최전봉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니다."

교회 성장은 신학과 목회의 조화
"지난 1백년의 한국 신학은 단순히 미국, 영국, 유럽의 신학을 이식하는 번역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학자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우리 나름의

독특한 신학이 정립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21세기의 한국 교회의 우선과제를 신성종 목사는 서양의 헬레니즘이라는 합리적이고 이성중심적인 신학을 극복할 수 있는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조화의 신학' (Theology of Harmony)의 탄생을 지적한다.

"동양에는 서양이 소유하지 못한 조화가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소유하려고 하니 동양인들은 자연과 조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동양적 조화를 통해 한국 신학이 세계 신학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성장학의 이론과 실제적 모델의 제시입니다. 성장학 이론은 서양이 앞서 있으나 실제 성장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신학은 교회성장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리라고 봅니다. 둘째는 한국적인 선교신학의 정립입니다. 과거 서양의 선교는 제국주의 확장의 방법론이었다는 아시아 제국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한국은 동남아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환영받고 있습니다. 셋째는 환경신학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문화는 자연과 조화하는 문화이고 그 문화에 신학이 접목된다면 세계를 향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미래의 목회는 신학과 연계하면서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면 기독교가 미래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목사는 신학과 목회의 상호의존에서 한국 교회의 발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교회의 역사 의식의 부재로 발생하고 있는 신앙의 기복화로 우리 사회의 문화, 사회, 윤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 교회가 역사 의식을 소유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 교회가 역사 의식을 소유하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분석하고 파악해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미래의 목회자는 산 속에 있는 목회자가 아닌 삶의 현

장 속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이 점에서 목회자들은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갖추도록 성경과 생활을 연결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사명 의식과 소명 의식을 깨달을 때 역사 의식이 섹트고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는 이러한 역사 의식에서 현대 문화와 미래 정보 사회에 대처하는 목회를 '컴퓨터 목회'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컴퓨터 목회란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보다 많이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미래에 대처하는, 한편 그것을 통해 교인들을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원화된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은 현대 목회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경조사를 파악하고 교회 안에 숨겨진 일꾼을 찾아 활용하는 것은 대교회에서는 컴퓨터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와 고도화된 문명의 여가와 전문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목회에서는 변화되지 않을 것에 대해 신성종 목사는 "21세기가 된다고 해서 선교는 목회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됩니다. 열교가 성경과 삶의 현장을 연결하는 개교로서, 자연히 목회에게 예언자와 제사장, '역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했고, 제사장은 기도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의 목회자나 미래의

목회자는 이 두 가지 역할에서 동일하다고 보며 양들을 향한 삶의 모델과 청지기 의식은 빈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AD 2천년운동의 주관자

1971년 시만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이래 세계 선교에 눈을 돌린 충현교회는 AD 2천년운동을 통해 세계 선교와 통일된 미래 한국의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신성종 목사는 AD 2천년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AD 2천년운동은 AD 2천년까지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세계 선교국의 주체로서 한국 교회와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족 복음화라는 차원에서 북한

의 복음화에 AD 2천년운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북한 선교는 중국이나 소련의 방식으로 선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실천과 같은 순수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위한 정 도해야 합니다. 사랑보다 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없고 사랑이 전파되면 복음도 전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실천 운동 전개
신목사는 북한을 향한 '사랑의 실천'과 함께 호남과 영남의 화합 운동을 지적한다.
"호남과 영남의 진정한 화합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파가 통합은 안된다고 해도 교회가 화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남과 영남의 화합을 교회가 주도해간다면 그것을 통해 연은 경

합의 축적과 사랑의 힘이 북으로 뻗어갈 것이고 통일된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민족 화합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AD 2천년운동이 교계의 세력 확장이나 외적인 힘을 과시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 모델로

"우선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보면 경험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한 사람으로서 충현교회에 위임받으면서 각계의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충현교회에 갖는 기대는 충현교회가 단순히 하나의 교파에 속한 교회로서의 활동이 아닌 한국의 대표 교회로서, 나가서는 세계사적인 일들을 감당해줄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 눈으로, 귀로 확인하면서 기도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될지는 모르나 제림과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영성 계발과 성령의 기쁨을 준비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 운동을 하고 전도를 집중적으로 실행하며 제자훈련을 강화해갈 것입니다.

둘째는 보다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초대 교회와 같은 섬김의 도를 실천하리라고 합니다. 충현교회는 합동측에 속해 있으면서도 합동측의 성격을 적게 가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이 충현교회가 한국 교회 내에서 연합의 구심제로 여러 교회를 섬기고 쓰임받은 청지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충현교회가 세계 선교지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교회로서 선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불신자들의 전도 이후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양육 프로그램과 교제를 한국 교회에 제시하리라고 합니다.

넷째는 21세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와 1천만 기독교인들에게 중대한적인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역사 의식을 불어넣어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통일을 향한 민족 화합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한국 교회에 제시함으로써 충현교회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종으로서,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갖춘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부여받고 가능한 한 사랑의 공동체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 열매 역할을 두어 무겁고 딱딱한 권위주의적인 교회가 아닌 봉사과 기도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봉사와 기도 속에 열매 맺는 교회
역사의식 소유하고
미래 주도하는 사명 감당

장로칼럼

해방과 참자유

김차생 장로(기획위원)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서 해방을 쟁취한 날이다.

올해는 그 해방 47주년이 되는 해이다. 해방이란 포로된 상태에서 놓여남을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에 의해서 모든 주권이 박탈당하고 포로된 상태에서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속박을 받고 살다가 해방된 것이다.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국토를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기고 나중에는 이름도, 성도 빼앗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사는 것 같지 않는 모진 세월을 견디어 내어야 했다. 그 36년 동안 일본이 자행한 인간 이하의 일을 이 짧은 지면에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그 36년에 대한 죄악된 과거를 사죄하고 청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싶은 뿐이다. 부인하려는 데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 측은하기도 하고 답답하다. 그들이 얼마간의 경제적 부를 축적했다고 해서 그 과거가 청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건만 일본은 그 부를 코에 걸고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우쭐거리고 있는 꼴은 보기에 민망할 정도이다. 일본은 한국을 필두로 한 아시아 제국에 대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서두르고 있다. 과거 아시아인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일본군의 군화가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한다는 사실을 두고 우리는 심한 갈등과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아시아 인민에 대한 전쟁 책임을 통감하고 과거를 철저히 청산해야 비로소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말이 좀 빳나갔지만 성경에서 '포로'란 말은 주전 722년 이스라엘 열지파와 주전 586년 유다가 포로된 것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앗수르와 다윗왕 빌레셀(왕하17:3, 5), 시라온 2세(왕하17:6, 7)의 잇따른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 열지파는 포로가 되었다. 남왕

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에 의해서 1세대 이상 포로가 되었다. 주전 605년 선지자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이 잡혀갔고 주전 597년에 여호야킨왕과 수천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잡혀갔는데 그들 중에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때 가난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주전 539년 바사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이 정복되었는데 그 다음해 주전 538년에 유대인들에게 귀환해도 좋다는 특령이 내려졌다. 그 결과 스룹바벨과 함께 4만3천명이 귀환했고 주전 458년에는 에스라와 함께 1천8백명이 돌아왔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 그 포로된 땅 그말강가에 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아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수금을 타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기도 했다.

포로된 자가 아니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른다. 인간이 포로가 되

는 상태는 인간에 의한 압제를 받는 상태도 있지만 병마에 의해서 포로가 되는 자도 있고 욕심에 포로가 되는 자도 있다. 그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죄에 의한 포로가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죄의 포로가 되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4:18)란 말씀도 결국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복음의 선포인 것이다.

이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는 참된 해방이 주어지는 것이다.

렘플턴상을 받은 한길치 목사가 귀국 환영식장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장내가 숙연해지는 것을 보았다. 한길치 목사는 이 말을 통해서 참 해방의 기쁨을 모든 신자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려고 했을 것이다. 죄에서의 해방이야말로 참 해방이 아닐 수 없다.

▶ 이름성경학교 참가 소감문 ◀

세 족 식

권오은(초등4부)

여름성경학교라는 말만 들으면 웃음이 나온다. 우리가 선생님



어요."라고 말하자 전도사님께서 "오늘 저녁에 또 울라."고 말씀하셨다. 세족식을 하며 회개하고 내 죄를 씻어줬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늘처럼 기쁜 날은 처음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은 해방은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라고 몇 번이고 다짐한 기도하다 눈물이 나와 목이 쉬었다.

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6:30)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구역예배 ●
(1992. 8. 21)

내일에 대한 바른 이해

· 본문 : 마태복음 6장 25절~34절
· 요절 : 마태복음 6장 34절

· 찬송 : 421장, 263장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의 문제는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위한 하루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일에 대한 예감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을 때 몹시 불안하고 오늘의 일이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내일만큼 막연하며 예상할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오늘과 같은 또 한번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수없이 실패하며 살수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만약 주님께서 내일 오시지 않는다면 그 내일은 모든 실패와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눅13:8)라고 간청했던 파원지가처럼 하루 동안의 일을 만회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그 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계획을 세우며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또 한번의 은혜의 날입니다.

2.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범죄자의 내일은 오늘의 걱정과 염려의 연속에 될 것이지만, 자유자의 내일은 그 자유를 누리며 맛볼 수 있는 또 한 날에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일 일

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6:30)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3. 내일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새벽일는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불개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개22:20)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24:42, 43)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항상 오실 주님을 맞고자 하는 들뜬 기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하신 뜻대로 내일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건강과 물질과 여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없는 삶을 살도록 시간을 선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미쁘신 뜻입니다.

적용 및 기도

1.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후회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